

‘미래 스포츠 스타’들의 동계청소년올림픽 막 올랐다

2월 1일까지 강원도 일대...79개국 1803명 참가 ‘최대 규모’ 자메이카·튀니지 등 육성사업 참가 9개국 25명 선수도 참가 쇼트트랙 김유성·‘루지 신동’ 김소윤·하운 남매 등 금 도전

‘미래의 스타’들이 강원도에서 동계청소년올림픽 열전을 시작한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 2024)이 19일 개막해 2월 1일까지 강릉, 평창, 정선, 횡성에서 계속된다. 이번 대회에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79개국 1803명이 참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4년마다 열리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2012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고, 앞선 3회 스위스 로잔 대회에는 76개국이 참가했다. 개최국인 한국이 가장 많은 102명의 선수를 파견하고, 이어 미국과 독일에서 각각 101명과 90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동계 스포츠 강국으로 꼽히는 오스트리아(61명), 캐나다(79명), 스웨덴(53명)은 물론 동계청소년올림픽에 첫선을 보이는 나이지리아(6명), 튀니지(3명), 아랍에미리트(2명), 푸에르토리코(1명), 알제리(1명) 등 5개 나라도 강원 2024 출사표를 던졌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이번 대회에 불참하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는 44명의 선수가 강원도를 찾았다.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인 2024 강원은 19일 오후 8시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장과 평창돔에서 이원으로 열리는 개회식을 통해 화려한 막을 올린다.

‘우주’와 ‘우리’라는 핵심어를 바탕으로 1시간 30분 동안 개회식 공연이 진행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인면조 공연과 드론쇼를 연출하며 화제를 모았던 양정웅 감독이 다시 한번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양 감독은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grow together, shine forever)’라는 대회 슬로건에 착안, 강원도 산골 소녀 ‘우리’가 꿈을 찾아 떠나는 상상여행을 공연 주제로 삼았다. 이번 대회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유산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강원 2024는 평창 올림픽 무대였던 시설들을 활용해 치러진다. 참가 선수들은 세계적인 스타들이 열전을 펼쳤던 곳에서 또 다른 ‘올림픽 꿈’을 꾸게 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인 ‘동계스포츠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 선수 육성사업’에 참여했던 태국, 대만, 몽골, 싱가포르, 브라질, 콜롬비아, 자메이카, 케냐, 튀니지 등 9개 나라 25명의 선수도 이번 대회에서 기량을 선보이게 된다.

한국 동계 종목 유망주들이 총출동하면서 미리 보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될 전망이다. 20일 쇼트트랙 남자부 기대주 김유성과 주재희(이상 한광고), 여자부 유망주 정재희(한강중)와 강민지(인천동양중)가 남녀 1500m에서 금메달 사냥을 개시한다. 같은 날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모습을 드러낸 ‘루지 신동 남매’ 김소윤(신명여고)과 김하운(사리울중)에도 시선이 쏠린다. 지난해 2월 현역 선수들을 제치고 성인 국가대표가 된 ‘누나’ 김소윤과 지난해 최연소 국가대표가 된 ‘동생’ 김하운이 각각 여자 싱글과 남자 더블 종목에 출전한다. 22일에는 지난달 이탈리아 퓌발보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월드컵 2차 대회 여자 500m 우승자인 정희단(선사고)을 필두로 남자부 허석(의정부고)과 신선웅(별내고), 여자부 임리원(의정부여고)이 스피드스케이팅 남녀 500m 경기 출발선에 선다.

25일에는 지난해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종목 최연소 우승 기록을 갈아치운 이재운(수리고)이 슬로프스타일 종목에 나선다. 이재운은 주 종목인 하프파이프는 물론 슬로프스타일, 빅에어까지 금메달을 노린다. 28일에는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 신지아(영동중)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진다. ‘포스트 김연아’를 꿈꾸는 신지아는 2008년생 동갑내기인 일본 시마다 마오와 시상대 가장 높은 곳을 놓고 뜨거운 경쟁을 펼친다. 대회 폐막날인 2월 1일에는 스노보드 간판 최가운(세화여고)이 ‘금빛 비상’을 준비한다. 그는 2022년 3월 국제스키연맹(FIS)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정상에 섰고, 지난해 1월 미국의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 X게임 슈퍼파이프 부문에서는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달에는 2023-24 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한국 선수로는 사상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2026 동계 올림픽 메달 후보로 꼽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탕~탕~탕~ 사격 유망주들...나주서 국가대표 꿈 키운다

전남국제사격장 전훈지 각광 꿈나무대표팀 2주간 동계훈련

나주에서 사격 유망주들의 꿈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2023년 사격 꿈나무대표팀 28명이 나주에 위치한 전남국제사격장에서 합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일 나주를 찾은 이들은 오는 21일까지 2주간 동계 합숙훈련을 소화한다. 이번 합숙 훈련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사격연맹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다. 박희복(대전대신고) 감독을 중심으로 이희석(남원중)·김아름(강원체육중·이상 소총) 코치,

안효숙(남성중)·장나영(충북체고·이상 권총) 코치 등 전문지도자 4명이 기술 훈련, 정신력 집중 훈련, 기초체력 훈련, 인권교육, 기본소양교육 등을 진행한다. 선수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권총선수 14명(남녀 각 7명), 소총선수 14명(남녀 각 7명) 등 28명으로 구성됐다. 심재현 전남사격연맹회장은 “훈련 선수단의 방문을 환영한다. 꿈나무 대표선수들이 대한민국스 포츠를 이끌어 나갈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국제사격장이 동계훈련지로 주목받으면서 선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체고(권총 15명), 대전대신고(권총 12명), 제주여상(25m 4명) 선수들이 훈련을 진행했

고, 경북체중(소총 9명), 인천안남중학교(권총 9명) 선수단도 동계 훈련을 위해 나주를 찾은 예정이다. 특히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50명이 넘는 경기도 선수단(소총 44명·권총 8명)이 훈련을 하는 등 도내·외 44개팀 200여명의 선수가 이곳에서 2024 시즌을 준비한다. 전남도체육회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를 계기로 한층 더 시설과 기구가 좋아졌고, 전남 관광·문화·먹거리가 좋다”며 “오는 5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도 앞두고 있어 많은 선수단이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국제사격장은 전남 유일 실탄사격장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클레이 사격장도 운영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이건 못 막을걸” 1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2회전 알렉세이 포피린(호주)과 세르비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경기에서 세르비아의 노박 조코비치가 복귀전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소프트테니스연맹 출범...이은주 회장 취임

“꿈나무 육성·발굴 최선 다할 것”

한국초등소프트테니스연맹이 18일 임시총회를 열어 초등연맹 출범을 알리고, 초대 회장으로 이은주(사진)씨를 임명했다. 연맹은 ‘제65회 전국유소년소프트테니스대회’가 열리는 순창군 공설운동장 회의실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비체육인 출신’의 이은주씨가 회장직에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소프트테니스와 학생들에게 애정이 많은 그는 지난해 고흥동초 소프트테니스부에 1억 5000만원

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은주 회장은 “소프트테니스 발전과 꿈나무 육성 및 발굴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소프트테니스가족 여러분들의 신뢰 속에 초등소프트테니스 발전에 기여하는 연맹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외계+인 2부
2관	위시, 덤 머니
3관	노랑: 죽음의 바다
4관	외계+인 2부
5관	서울의 봄
6관	위시
9관	서울의 봄, 인투 더 월드, 신차원: 땅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 -남아라 수제김밥-
7관 싸투룸	덤 머니, 풀 미 바이 유어 내임, 작은 아씨들
8관 싸투룸	김영 3: 운명의 불꽃, 김위에 김대중, 스포츠의 문답: 다녀왔어, 더 퍼스트 스타, 랭킹: COURT SIDE in Theater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마리퀴리
GAC 포시즌 뮤지컬 마리퀴리
일시: 2024-03-02(토) ~ 2023-03-03(일)
14:00, 18:3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3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드라마틱한 순간
GAC 공모전시 정송희 개인전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한 순간>
일시: 2024-01-17(수) ~ 2024-02-18(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062-613-8357